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집 2층
전화 273-9535 팩스 273-9539 천리안·하이텔 KWAU

인터넷 <http://withkwau.or.kr>



당신이 기억해야 하는 날

당신이 여성이라면,
이 날을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날로
기억해 두세요.
이제는 먼 옛날이 아니라 자구의 통과 사제사,
당신들이 이렇게 살아왔던 일들을
종교개혁 시작한 날입니다.

이 날로써 비로소 당신들은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머리로 생각했고,
자기 것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자 오릅니다.
이 날은 그와 대등하면 한 당신이
'여성'임을 드러내는 순간,
공평하면 여가 되는
날임으로써서 살아날 수 있다고
가장 해주었습니다.

1908년 3월 8일
15,000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이 뉴욕 루트거스 공장에 모여
'하늘 아래 여남이 다들 수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기 위해
행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신의 날입니다.

뉴욕 여성시위 맞은 뒤 클리퍼 재트킨을 비롯한 세계 여성 지도자들은 이 날을 기념하여 '여성의 날'로 칭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985년부터 이날 여성포럼을 열고, 그해 여성운동들 '앞면'이후에 '뒤면'에 '여성운동상'을 주고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새 심볼과 로고를 도입했다. 공동체를 의미하는 타원의 테두리 안에 하나로 모인 각계각층 여성이 세계 무대의 전면으로 나아갈을 형상화하였다. 영문로고 "KWAWU"는 "Korea Women's Association United"의 약자이다.

“함께, 여성시대를 열어요”

어떤 젊은 여성학자가 자기 책에서 “남녀가 함께 진행하는 방송 프로그램 중에 여성의 이름이 먼저 소개되는 프로그램은 「여성시대」 하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누구나 겪는 차별, 더 말해 뭐할까요. 그나마 요즘 차별이 ‘차별’로 인정되기 시작했으니, 이 얼마나 큰 발전(?)인지 모릅니다.



민주화의 물결이 밀려온 지 10년, 우리 여성에게는 100년에 맞먹는 세월의 땀방울이 있었습니다. 성차별적인 법이 하나 둘 사라지고, 곳곳에서 여성들이 제 목소리를 내고, 고개를 숙였다느니 하는 가부장주의의 엄살이 들려옵니다. 여성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여기 일꾼들이 있습니다. 능력, 경력 고루 갖추고도 승진에서 탈락된 억울한 여성의 친구되어 함께 법원을 드나들고, 매맞은 아내의 아픔을 나누며 폭력으로부터 가정을 지키려 뛰어난 사람들. 성폭행의 악몽에 시달리는 여성의 곁에, 집단해고된 여성근로자들의 농성장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파헤치는 현장에 늘 친구되어 온 사람들. 자신들 역시 여성으로서의 삶의 무게를 버거워하면서, 성차별의 현장에서 현장으로 동분서주해 온 이들. 우리나라 여성의 친구,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지난 10년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들이 앞장 서 물꼬를 텃으니, 나머지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더욱이 그이들은 여성운동을 소수 지식인들의 품에서 생활여성들의 걸로 옮겨다 놓았습니다. 서울, 광주, 부산, 어느 시, 무슨 군 할 것 없이 곳곳에서 평등시대를 여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워 꽃피울 여성시대, 남은 길에서도 언제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고마워요!

●순숙(연극인·방송인)●

이 경숙님께서 기증하셨습니다.

힘 내세요!

여기,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있습니다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 평화의 집』이라는 문패가 붙은 곳.

지하 1층, 지상 4층의 이 집에

당신의 희망을 키우는 여성단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 뚫뚫 뭉쳐,

10년째 성차별의 벽을 허물어 왔습니다.

그 자리에 당신의 희망이 움터 오릅니다.

오셔서 함께 허물어 주세요.

꽃 피우고 열매 맺어 주세요.

희망의, 평등의, 평화의...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96년부터 우리 단체를 이끌고 있다. 이화여대 사회학과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전공. 모교와 덕성여대, 한신대 등에서 여성학을 강의했다. 지금까지 수백여 차례 주부, 직장인, 등을 상대로 강의하여 여성학을 강단에서 생활현장으로 옮기는 데 힘썼다. 『한국여성학우회』 대표를 지냈으며, 현재 한국여성사회교육원 원장을 겸하고 있다.

희망의 21세기를 준비하며

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987년 창립한 이래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가짜법, 남녀고용평등법, 영유아보육법, 성폭력특별법, 그리고 현재 입법 운동을 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법적인 권리를 향상시켜 왔습니다. 법·제도 개선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 문화를 바꾸는 노력도 계속해 왔습니다.

여성운동은 이제 낯설지 않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쌓여 있습니다. 21세기를 몇 해 앞 둔 지금, 우리는 여성들의 힘으로 21세기를 희망의 세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21세기의 여성은 더 이상 우리사회의 주변을 떠도는 국외자가 아니라, 사회의 담당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남녀가 평등하게 일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튼튼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우 리 여성들은 언제나 막힌 물꼬를 트고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 여성단체연합은 사회 민주화 확보, 경쟁평등노동권, 여성의 인권 확보를 위해서,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작은 것을 하나씩 이루며 여성의 역사를 창조하고 개척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의 새 희망의 물결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21세기는 풍부한 감성과 창조력을 가진 우리 여성들의 시대가 될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 시대를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앞장서 열어가겠습니다.

뜻을 높이 세우고자 하는 여성들이 모여, 저마다의 개성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남녀가 평등하게, 모든이가 평화롭게 사는 좋은 세상을 향한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늘 노력하여 튼튼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한명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96년부터 우리 단체를 이끌고 있다. 오랫동안 산업현장에서 노동운동 지도자로 활동했다. 70년대 후반부터 「한국콘크리트대미타」 노동조합의 위원장(77년-82년)을 맡아 여성노동운동의 길을 열었다.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서울시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부회장 등 사회단체 지도자로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다.

여성의 절박한 생존문제에서 출발하는 운동

성폭력에 만신창이 되어 평생을 악몽 속에 살아가는 여성, 고추타령에 해마다 사라지는 3만명의 여아, 사흘이 멀다하고 매 맞는 아내, '아이나, 일이냐'의 갈릴길에서 눈물 흘리는 직장여성... 겪어보지 않고서는 느낄 수 없는 여성의 고통에서 출발하는 운동입니다.

성차별 해결의 비전을 갖춘 운동

우리 단체는 철벽 같은 남성중심 사회를 향해 여성들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해왔습니다. 은폐되었거나 번두리에 머물던 여성문제를 사회 한복판으로 끌어내,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만 던지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여성운동을 합니다

여성의 인생을 바꾸는 운동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통해 곳곳에서 성차별의 벽이 무너져 여성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는 일이 달라지고, 월급이 늘어나고, 발언권이 높아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조금씩 힘을 모아 한 목소리 내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이 바뀌는 운동입니다.

온여성이 함께 가는 길

일부 지식인 여성들만 운동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 단체는 지난 10년간 여성운동을 여성의 삶터 가까이로 가져왔습니다. 농촌에서 대도시까지 곳곳에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하는 여성단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마다의 문제해결에 노력하면서, 힘에 겨운 큰 문제는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 뭉쳐 일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자기 사는 곳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원대한 이상을 품은 운동

20세기까지의 남성중심사회는 전쟁과 폭력과 차별, 자연에 대한 수탈로 얼룩져왔습니다. 문명의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 인류의 마지막 숙제이기도 한 성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성운동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반대하는 운동입니다. 생명과 평화와 평등의 원대한 이상으로 21세기를 열어가는 운동입니다.





여성정책개발

● 사회 각 분야의 여성문제 해결
대안 만들기 ● 여성운동 단체에
대한 정책 지원 활동 ● 성차별법
의 대체법안 개발 ● 남녀 동등사
회에 대한 비전 제시

사회여론화

● 성차별 문제에 대한 여론을 확
산하고, 사회인식을 바로 잡기
위한 다양한 활동 ● 성차별 피해
여성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여성운동 차원에서
다룸 ● 「성차별 문제에 대한 언
론보도, 공청회, 캠페인 등

압력활동

●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을 상
대로 성차별법·제도·관행의
배지를 촉구하는 활동 ● 성차별
을 조장하는 정치인·공직자·
기업주에 대한 고발활동

여성운동지원

●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회원단체
및 기타 여성단체들의 활동 지
원, 여성정책 및 정보제공, 여성
운동가 교육 등 ● 여성운동가 교
육 ● 노동조합·여성농민회 등
직능별 여성단체 활동지원 ● 여
성운동 발전에 기여한 사람·단
체에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여

연대활동

●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개혁운동·환경운동·평화
운동에 적극 참여 ● 노동조합 및
각 분야의 시민단체와 연대활동
● 세계 각국 여성운동단체와 연
대활동

가정은 폭력의 치외법권지대인가요?

96

년 어버이날, 서로 살인범을 자처하다 끝내 부동켜안고 울어버린 모녀의 이야기가 신문 읽는 이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몇 해 전 제주도에서 성폭행 당한 딸은 식도 울리지 못한 채 가해자와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거를 날 없이 매 맞아 온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모녀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는 절망감에 몸부림치다가, 급기야 어머니가 사위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노모의 구속을 걱정한 딸은 자신이 범인이라며 자수해 대신 구속되었는데, 이를 못견뎌한 어머니가 얼마 뒤 진상을 밝혀 구속되었습니다. 당신은 이 사건에 어떤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96년만 해도 이런 사건이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대항하지 못하고 그저 당하기만 하는 여성의 수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61%가 남편에게 구타당한 경험이 있고, 이 가운데 15%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만큼 폭력의 정도가 심각합니다. 「한국여성와전화」 상담실에는 사흘이 멀다 하고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절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후환이 두려워 고발을 하거나 이혼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복어와 여자는 사흘에 한 번씩 패야한다’는 소름끼치는 사고방식이 아직도 버젓하지 않은가요? 폭력이 일어난 장소가 가정이라고하여 법과 경찰이 마냥 방관하는 것도 다 이런 사고방식의 연장이 아닐까요? 우리 단체는 가정폭력도 일반폭력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범죄이기에 법과 경찰의 손이 미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취지로, 이 나라의 매맞고 사는 모든 여성과 아이들,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해 가정폭력방지법을 국회에 청원했습니다.

우리 단체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단체는 여성·시민단체들과 함께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해 법률안을 만들고 8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법제정을 청원했습니다. 이제 가정폭력도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 가정폭력피해자를 가정에서 일정 기간 축출하는 퇴거명령, 접근금지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 격리처분 등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정신적·경제적 보상 대책
-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 마련



일시: 1996년 3월 9일

장소: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단체연합에 바란다

이미경 • 국회의원 • 우리단체 전 공동대표

우리 여연은 가시밭길 헤치며 여성 운동을 개척해 왔습니다.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험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여연과 함께하는 여성의 미래는 희망입니다. 앞으로 여연은 정부의 의사 결정적과 사회 각 분야에 여성이 더 진출하

고 고용과 승진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뿌리깊은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태아 감별·성비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여연과 함께 남녀평등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이라고, 차별받아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81년에 경남 사천시 삼천포신협에 입사한 김두선 씨는 88년에 대리, 93년에 과장으로 어렵사리 올라와 부장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사 결과는 예상을 빗나가, 김씨의 입사 4년 후배이자 과장서리인 남자직원이 부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비참한 심정에 회사를 그만두려던 김씨는 생각을 고쳐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고, 노동부는 김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회사에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도리어 김씨를 명예훼손으로 무기정직시켰습니다. 김씨는 이제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법에 호소합니다. 회사의 조치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성차별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간 일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김두선씨 경우처럼 '여성은 과장 이상은 안된다'는 식이 여성을 보는 우리 사회의 수준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있긴 하지만 여성에게는 자기 능력에 맞는 직장에 취업할 기회 자체가 부족합니다.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이 어려워 능력보다 낮춰 저임금직종에 취업하기 일쑤지요. 취업해서 똑같은 일을 해도 재값을 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결혼을 하거나 출산한 여성은 따가운 눈총에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가 태반이지요. 아이가 얼마쯤 자란 뒤 재취업하려고 하지만, 그때는 저임금 직종이나 불안정한 일자리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 단체는 일터에서의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89년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운동을 벌여, '똑같은 일을 한다면 임금 역시 남녀가 동등하게 받는다'는 원칙을 법이 보장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에 대한 규제가 없어 아직도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이 법이 실질적인 성차별 금지법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단체와 여성계·노동계 공동의 노력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89년과 95년 두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법에는 무희적인 간접차별을 규제하는 조항이 없으며 법위반에 대한 처벌도 미흡합니다. 법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 채용시 여성을 30% 우선 채용토록 하는 고용할당제의 실현에 힘을 쏟겠습니다.

●여성근로자에 대한 무희적인 간접차별 규제(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직장내 성희롱 방지 대책 마련(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여성 30% 고용할당제 도입 ●일시직·계약직·촉탁직 등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보호 ●여성 취업 촉진 위한 직업훈련 기회 확대





성폭력, 이 야만이 더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합

머니와 단 물이 사는 초등학교생이 한 동네 남자 세명에게 번갈아 성폭행 당한 뒤 법인들의 이름을 적은 유서를 남기고 농약을 마시고 자살 시도, 새들어 사는 집의 70대 아버지와 30대 아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 당해 낙태하고 정신 분열증에 빠진 여중생, 원장에게 성폭행 당한 유치원 어린이, 선생님에게 성폭행 당한 초등학교생, 상사에게 성폭행 당한 여직원...

직장·학교·가정·버스나 전철안·길거리, 심지어 유치원까지, 이런 곳에서 해마다 40만건의 강간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인 여성의 94%가 성폭력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실제 76.4%의 여성이 가벼운 성추행을, 7.7%의 여성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여성이 때와 장소를 가릴 것 없이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성범죄율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를 비롯 여성계에서 3년 동안 끈질긴 활동을 편 끝에 93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범죄 신고율이 3.5%에 미치지 못할 만큼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중범죄인데도, 이른바 '친고죄'라는 조항이 있어 범죄의 피해자 자신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고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고죄가 피해사실을 은폐시키고 가해자의 상습적 범행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소시효가 1년으로 되어 있어 12년 동안 자신을 강간해온 의붓 아버지를 죽인 김보은씨나 성폭행한 남자를 수십년 지나 살해한 김부남씨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알제의 잔인한 성범죄가 지나간 자리에서 다시 동족 남성들에게 희생당하고 추행당하는 우리 여성들의 비극을 끝내기 위해 정부와 국회와 사법당국과 기업주와 매춘산업인들에게 촉구하고 또 촉구합니다.

우리 단체는 이렇게 합니다

모든 여성의 절실한 바람이었던 성폭력특별법이 우리 단체와 여성계의 끈질긴 노력으로 93년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법이 친고죄 조항과, 1년 고소시한에 묶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의 개정과 함께 성폭력의 온상이 되고 있는 성의 상품화, 향락산업의 추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성폭력특별법 친고죄 조항 폐지, 고소 시한 폐지
- 향락산업 및 음란물 제작·판매사업 규제 강화
- 초·중·고교에서 성교육(양성평등교육) 의무화



우리 단체는 90년 11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참여하여, 정신대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7년째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92년 1월부터 시작된 이 시위는 96년 12월로 247번째에 이르렀습니다. 북한, 중국 등 일제의 성범죄 피해국 여성운동단체들과도 손 잡고 이 문제를 세계에 알려왔습니다. 그 결과 96년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일본이 국제법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식권고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꿈을 위하여

초

부에서 대통령까지, 낱알만 떠올려도 가슴을 울린다는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됨'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한창 일할 나이인 25~34세의 우리 여성들은 일터에서 밀려나고 맙니다. 일과 아이의 양자택일이 강요되는 현실에서 여성은 출산과 함께 대개 가정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여성민우회의 조사에서는 25~39세 여성들의 75%가 육아 때문에 직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년 동안 모성보호를 비롯 여성 복지에 쓰는 돈은 172억. 관련단체 지원금이 110억원임을 감안하면 우리의 모성은 사회에서 거의 버림받고 있는 셈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1년 미만의 영아를 둔 여성근로자는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지만, 결혼만 해도 퇴직해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육아퇴직은 있어도 육아휴직은 꿈같은 일입니다.

우리 단체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단지 한 가정의 일만이 아니고, 우리 나라를 지탱시켜가는 사회창조활동이라고 보기에 국가가 모성보호의 책임을 나눠져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모성을 사회보장으로 해결하는 것은 이미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모성보호비용이란 출산으로 알하지 못해 생기는 손실, 임신과 출산, 산모의 건강회복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우리의 경우 이 비용을 개인이나 기업에만 짐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주는 여성채용을 기피하고, 여성은 일하고 싶어도 가정에만 묶이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여성계·노동계와 공동으로 「모성보호의 사회부담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정부에 제안하였습니다. 어머니이면서 작업인으로 살고자 하는 여성들의 바람이 실현되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요구하고, 지원하고 채찍질하며 뛰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이렇게 합니다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를 위한 우리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도록 압력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노후 보장과 질병대비를 위해 여성의 국민연금권이 꼭 필요합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 출산시 산전산후 휴가(90일 이상) · 휴가시 소득 보장
- 종업원 150명 이상 사업장의 탁아시설 의무화, 시설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 학교급식 중학교까지 확대
- 영세기업 여성근로자, 여성농민도 출산과 육아시 동일한 보장





한국의 여성지위 세계 116개국 중 90위

요

좀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해전 세계 10등 안에
는 들어야 그저 할만할 했다고들 생각합니다.
이젠 경제력에서도, 올림픽 무대에서도 그 정도
는 너무나 해내기 때문 아닐까요?

이런 우리가 여성의 지위에서 만큼은 선진국은
커녕 동남아 나라들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바닥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떤 국제 조사를 보
아도 우리 여성은 형편 없는 후대접의 대상임
에 틀림없습니다. UN개발기구(UNDP)의 조사에
서 한국 여성의 권한정도는 세계 116개국에서
90위를 기록했습니다.

중요인사 인명록에서 여성의 이름을 찾기가
물어 콩나듯 하지요. 국회의원은 3%, 지방의원
(광역)은 5.7%, 여성언론인은 14%, 대학교수는
13.9%, 전문 기술종사자는 9.6%... 비교적 성차
별이 작다고 하는 공무원에서도 전체의 26.5%
가 여성이지만, 5급 이상은 2.8%에 지나지 않습
니다. 이 수치는 116개국 중 100위권 이하에 해
당하지요. 한국여성은 세계 골짜기의 대접을 받을
정도로 자질이 형편 없는 건가요?

우리나라에 다른 어떤 사회문제보다 여성문제
가 심각한 것도 여성이 중요한 자리에서 밀려
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책결정을 남성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여성문제가 용게 해결될 까닭
이 없습니다.

여성들이 정부와 기업의 중요한 위치에 30% 만
있어도 우리의 여성문제는 훨씬 줄어들 것입니
다. 그래서 우리 단체는 여성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의 하나로 여성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꼽습니다. 각종 선거의 입후보자
중 30%,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 30%, 공기업
직원 채용시 모집인원의 30%.

우리 단체는 당분간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
성 30%를 할당하도록 하는 운동에 힘을 쏟고자
합니다.

우리 단체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단체는 나라의 중요 의사결정기관에 30%만
여성만을 배정토록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
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 정부의
각종 위원회, 국회 등이 우리가 요구하는 할당제
의 대상입니다.

- 5급 이상 공무원 선발시 여성 30% 우선 배정
- 정부의 각종 위원회 여성 30% 참여
- 각종 선거의 정당 공천시 여성 30% 할당





평화와 여성의 활짝 한국 여성



법적인 남녀평등 이루길

이세준 ● 변호사 ● 한강운동연합 대표

저는 여성운동이, 여성을 보호받아야 할 약자가 아니라 남성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 '인간'으로 자리올림하기 위해 일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성의 사회참여, 특히 정책을 결정하는 곳에 여성이 진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여성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운동에 힘을 쏟는다고 합니다. 2천이 되기 전까지 5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 승진시 여성 30% 할당제, 각종 선거 공천시 여성 30% 할당제를 성사시켜 여성 스스로 희망의 21세기를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불모지에서 싹을 틔우다

8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는 여성운동의 불모지나 다름 없었습니다. 여성문제는 정부나 정치인들도 거들며 보지 않았고, 여성단체나 그 지도자들은 변두리나 머물뿐이었습니다. 민주화운동에서도 여성문제는 뒷전에 밀려있었습니다. 다만 이효재, 이우정 선생님을 비롯 선각자들이 대학, 종교단체, 산업현장에서 여성운동의 싹을 틔워왔습니다.

비전을 갖춘 여성운동의 등장

여성문제 해결의 비전과 의욕을 갖춘 여성단체들은 80년대 중반에 하나 둘씩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성운동의 선각자들,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여성활동가들, 노동운동의 여성지도자들은 여성 스스로의 힘이 아니고서는 여성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여성단체들을 만듭니다. 이때 성폭력·가정폭력 문제를 다루는 「한국여성의 전화」, 사무직 여성운동과 주부운동을 펼치는 「한국여성민우회」, 일터의 여성문제를 다루는 「한국여성노동자회」,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사회탁아소연합」, 종교계의 여성운동단체, 또 각 지역별 여성운동단체들이 등장해 여성운동 시대를 열어갑니다.

성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 10년

반들에서 시작해,

여성문제에 매달려온지 10년.

그동안 여성들이 보내준 뜨거운 지지 속에

비로소 여성운동의 길을 열었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은 여성과 더불어 성차별 없는 21세기를 열어가겠습니다.

여성문제를 사회 한복판으로 끌어내다

1987년, 여성단체들은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 공식게 됩니다. 이때부터 여성운동은 여성문제 해결의 대안과 능력을 갖춘 집단으로 등장합니다. 정부와 정당과 기업에 대해, 가부장주의와 권위에 찌든 사회에 대해 이제껏 여성들이 참아왔던 말들을 쏟아냅니다. 성폭력문제, 근로현장의 여성문제, 가난한 지역의 여성문제, 여성농민이 당하는 고통 등 감춰지고 무시되었던 문제들을 사회 한복판에 끌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비로소 하나둘씩 성차별적인 법들이 개정되고, 여성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운동 꽃 피운 장충동 시대

제대로 된 사무공간 하나 없이 셋방을 떠돌던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993년, 여성모금과 독지가 후원, 외국재단의 지원에 힘입어 서울 장충동에 「여성평화의집」을 세우고 한데 모여 여성운동을 펼쳐갑니다. 여성운동 출신의 국회의원, 지방의원이 등장하였고, 성폭력특별법을 비롯 여성운동의 주장들이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성운동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왔습니다. 남은 길을 당신과 함께

성폭력, 성차별의 피해를 증언하고 싸워준 용기있는 여성들,
무보수로 헌신해 온 여성활동가들,

일타에서 가정에서 가슴으로 지지해 준

모든 여성들과 함께 이룬 결실입니다.

25개 단체, 3만 회원의 한국여성단체연합,

당신과 함께

성차별 없는 21세기를 열겠습니다.

● 영유아보호법 제정(1986년)

● 가족법 개정(1989년)

● 탁아법 제정(1990년)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1989년, 1995년)

● 성폭력특별법 제정 제정(1993년)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1996년)

● 일본군 성노예문제에 대한 UN인권위원회(제52차)

공식권고문 채택(1996년)

이우정

1923년생. 1987년 우리 단체의 초대회장을 맡아 89년까지 일했다. 캐나다 토론토대에서 박사학위(신학)를 받고 20여년간 한신대 교수를 지냈다. 이 시절 우리나라에 처음 여성신학을 도입하였고, 강단에서, 교회에서 여성운동을 일으켰다. 제14대 국회의원으로서 초대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각종 성차별적인 법의 폐지와 여성권의 향상에 힘을 기울였다. 「여성신학의 이해」 등 이 분야의 선구적 저술 4권이 있다.

이호재

1924년생. 1990년에 회장을 맡아 2년 동안 우리 단체를 이끌었다. 세계를 발전시킨 1백인의 여성에 선정(프랑스 마리퀴레르지)될 만큼 여성운동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미 컬럼비아대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고 돌아와 이대에 사회학과를 개설, 30여년간 교수를 지냈다. 이때 그의 연구실에서 한국의 여성학과 여성운동이 태동하였다. 91년부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를 맡아 50년 가까이 묻혀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사회문제로 끌어올렸다. 79년 펴낸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은 여성운동의 교과서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여성을 여성운동의 길로 인도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10년을 이끌어온 사람들

조화순

1933년생. 92년에 우리 단체 회장을 맡았다. 66년부터 20여년간 우리나라 노동운동에 결정적 공헌을 한 도시산업선교회에서 활동하였다. 이때 동일방직에 이른바 '위장취업(국내 최초)'하여 여성노동운동을 이끌었다. 현재 강원도 광창의 「산돌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며 공동체운동을 펴고 있다. 자신의 노동·여성운동 체험을 담은 「고난의 현장에서 사랑의 불꽃으로」라는 저서가 있다.

한영숙

1944년생. 93년~96년에 우리 단체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화여대에서 여성학을 전공, 석사학위를 받았다. 74부터 「한국크리스찬아카데미」 강사로 활동하면서 여성운동에 기여했다. 이화여대, 성심여대 등에서 여성학을 강의했고, 89년부터 94년까지 우리 회원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 회장을 맡아 이끌었다.

이영순

1948년생. 93년(95년 3월까지) 우리단체 공동대표를 맡았다. 오랫동안 노동운동 지도자로 일하면서 여성 노동운동을 개척한 대표적 인물. 70년대에 콘트롤레이타 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냈다. 95년에 여성운동의 지원을 받아 서울시의회에 진출, 여성복지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해 대표를 맡았으며, 구로지역사회발전센터 대표를 지냈다.

이미경

1950년생. 93년부터 96년 4월까지 우리단체 공동대표를 맡았다. 83년 「한국여성평우회」 창립멤버로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부천서 성고문사건 등, 줄곧 여성의 피해 현장에서 일해왔다. 87년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창립에 큰 역할을 하였고, 이후 10여년간 우리 단체에서 헌신하였다. 여성운동 대표 자격으로 15대 국회에 진출해 일하고 있다.



여성을 높인 이들 여성운동을 빛낸 이들

우리 단체는 1987년부터,
그 해, 남녀 평등사회 실현에 힘쓴이(단체)에게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성의 미래에 모든 것을 바친
수상자들의 숭고한 뜻을 함께 이어,
하루 빨리 성차별의 장벽을 허물어 갑시다

- 1987년

권인숙 ● 성고문 피해 사실을 폭로하여 여성에 대한 성적 억압 현실에 눈 뜨게 함. 우리나라 여성운동 발전의 전기를 마련.
- 1988년

맥스테크 노동조합 ● 회사의 불법적인 위장 폐업에 항의해 54일간 농성하여 회사측의 조치를 철회시킴.
- 1989년

피코 노동조합 ● 다국적 기업의 부당한 기업 철수에 항의해 미국 현지까지 가서 활동함
강정순 ● 경찰에 의한 강간범죄 피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용기있게 폭로하여 권력의 여성 인권 유린을 사회문제화 함.
- 1991년

임수경 ● 당시 전대협 대표로 평양을 방문하여 분단의 장벽을 허무는 여성상을 보여줌.
- 1992년

박영숙 ● 의정활동(13대 국회의원)을 통해 여성의 입장을 대변. 바람직한 여성의원의 전형을 보여줌.
김학순 ● 정신대 피해자로서 일제의 성범죄를 최초로 폭로하여 일본의 사과, 배상을 촉구하는 운동을 일으킴.
- 1993년

중소기업은행노조 여성정책실 ● 여성조합원의 참여를 이끌어내 회사 내 성차별 문제를 해결. 여성노동운동의 새 지평을 열었음.
- 1994년

홍미영 ● 의정활동(기초의회)을 통해 지역내 여성복지 증진 및 지역주민 문제 해결에 공헌. 가정 모범적인 지방의원으로 평가받았음.
- 1996년

도츠카 예츠로우 ● 일본 변호사로, 한국을 비롯 피해국가 여성단체와 손잡고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였음.
- 1997년

이계경 ● 여성 언론매체인 「여성신문」을 창간. 경영하면서 여성의 입장을 대변. 가차없이 해결에 기여하는 언론으로 「세계여성권위」로 인정받았음.



“한국여성단체연합, 늘, 당신과 함께 합니다.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회원단체

거창여성회

- [570-800]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심아아파트 1209호
- 전화 (0598)43-8482 / 팩스 (0598)43-7654

경남여성회

- 장정임 회장
- [630-477] 경남 마산시 오동동 17-135 가교파오리스탈 504호
- 전화 (0551)44-9009 / 팩스 (0551)44-2753 / PC통신 KNMA(천리안)

광주여성노동자회

- 오미덕 회장
- [500-170]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423-25 천지약국 2층
- 전화 (062)522-3029 / 팩스(062)525-2896 / PC 통신 VS21(천리안)

광주여성회

- 도경진 회장
- [500-041]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1동 683-14 대공빌딩 4층
- 전화 (062)523-7900 / 팩스(062)523-7900

기독교여성회

- 선순화 회장
-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2층
- 전화 (02)265-7957 / 팩스(02)263-8090

대구여성회

- 김난경 회장
- [700-421]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1가 232-2 보성빌딩 4층
- 전화 (053)421-6758 / 팩스 (053)421-6758 / PC 통신 DNA(천리안)

대전충남여성회

- 장하진, 안정선 공동대표
- [301-011]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1동 210번지 2층
- 전화 (042)257-3534 / 팩스 (042)257-9790 / PC 통신 WOM123(천리안)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 주연옥 회장
- [630-492] 경남 마산시 회원구 방곡2동 151-30 광림주택 3층
- 전화 (0551)95-5355 / 팩스(0551)95-5355 / PC 통신 MCWL(천리안)

부산여성회

- 박영미 회장
- [614-030] 부산광역시 진구 부전동 347-3 한남빌딩 3층
- 전화 (051)807-6540 / 팩스(051)807-2836 / PC 통신 hweb(하이텔)

세계상봉하는 전주교여성공동체

- 윤순녀 회장
- [100-012] 서울시 중구 송파로 2가 11-2 전진상고육관내
- 전화 (02)319-4980 / 팩스 (02) 319-4980

서울여성노동자회

- 유옥순 회장
- [152-059] 서울시 구로구 구로 본동 409-54 여성복지회관내
- 전화 (02)867-0516 / 팩스 (02) 867-0516 / PC 통신 SWMA(천리안)

수원여성회

- [441-22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교동 140-1 3층
- 전화 (0331)38-1564 / 팩스 (0331)38-1564

인천여성노동자회

- 최상림 회장
- [402-063]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3동 52-20 127
- 전화 (032)863-2659 / 팩스 (032) 863-2659 / PC 통신 WOMEM(천리안)

한국여성노동조합연맹

- 고승자 회장
- [137-13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05번지 천혜빌딩 403호
- 전화 (02) 529-6349 / 팩스 (02) 571-4960 / PC 통신 KWFA(천리안)

전북여성노동조합

- 권정옥 외 공동대표 4인
- [561-18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664-55
- 전화 (0652)254-3459 / 팩스 (0652) 78-1226



한국 여성에서나 우리 여성운동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본부나 회원단체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사시는 곳에서 함께 여성 운동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성취감을 맛보았을 경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여성운동에 도움을 주시거나 자비회(연 10 만원)이 되실 분을 기다립니다. 어떤 도움을 주셔도 성 차별 없는 좋은 세상 만드는 데 크게 보탬이 됩니다.

후원 및 자료회원 계좌

- 가업은행
- 031-022566-01-015
- 지모
- 7627130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집(2층)
전화 273-9535 / 팩스 273-9539
천리안·하이텔 KWU
인터넷 <http://www.kwuo.or.kr>

제주여성회

- 오옥만 회장
- [690-170] 제주도 제주시 연동 293-16 3층
- 전화 (064) 49-0261 / 팩스 (064) 49-0261 / PC 통신 VIVAR(천리안)

지역사회학아스연합회

- 남미경 회장
-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 전화 (02) 275-8505 / 팩스 (02) 275-8506 / PC 통신 GTYD(천리안)

충북여성인우회

- 김해숙, 정진경, 최이혜 공동대표
- [361-01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850번지
- 전화 (931) 63-8124 / 팩스 (0431) 63-8124 / PC 통신 CBWM(천리안)

포항여성회

- 김숙자 회장
- [780-191]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1동 412-4 세기빌딩 203호
- 전화 (0542) 75-7436 / 팩스 (0542) 75-7436 / PC 통신 PHWOMEN(천리안)

한국여성인우회

- 이경숙, 정강자, 김상희 공동대표
-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1층
- 전화 (02) 269-5763 / 팩스 (02) 269-5766 / PC 통신 A325(천리안 하이텔)

한국여성사회교육원

- 지은희 원장
- [100-452] 서울시 중구 신당 2동 400-9번지 301호
- 전화 (02) 232-0363 / 팩스 (02) 232-0384 / PC 통신 WSR92(하이텔)

한국여성연구회

- 정현백 회장
- [100-457]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1624-1 이진타운 A동 B03호
- 전화 (02) 887-8198 / 팩스 (02) 887-8198

한국여성복지협의회

- 정영희, 정영순, 이호순 공동대표
-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4층
- 전화 (02) 275-7754 / 팩스 (02) 269-0670 / PC 통신 KAWT(천리안 하이텔)

한국여성과학회

- 신복우 회장
-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 전화 (02) 269-2962 / 팩스 (02) 269-2966 / PC 통신 KWML(천리안 하이텔)

합계하는주부모임

- 우창애 회장
- [700-424]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4가 61 미봉빌딩 4층
- 전화 (053) 425-7701 / 팩스 (053) 425-7701

참관단체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 이현숙 원장
-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집 4층
- 전화 (02) 275-4880 / 팩스 (02) 275-4861 / PC 통신 KCMT(천리안)

새물결

- 김현선 대표
- [483-034]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4동 541-39 11/4 3층
- 전화 (0351) 867-4655 / 팩스 (0351) 867-4655 / PC 통신 SEWOOM(천리안)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오성숙 회장
- 서울 용산구 한강로 32가 40-474 2층
- 전화 (02) 790-3153 / 팩스 (02) 798-6094 / PC 통신 HAKJUMO(천리안)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 이철순 회장
- [152-059] 서울시 구로구 구로 본동 496-43 1층
- 전화 (02) 869-1347 / 팩스 (02) 837-1407 / PC 통신 KWNW(천리안)

한국여성단체연합 지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 유가호, 김난경 공동대표
- [700-421]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1가 232-2 보성빌딩 4층
- 전화 (053) 421-6758 / 팩스 (053) 421-6758 / PC 통신 DNA(천리안)

여성의 눈으로
뛰어들어 세상을
바꾸자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가 38-4 여의도역빌딩 2층

전화 02-5535 7771 273-9539 팩스 02-5535 7771 KWA

인터넷 <http://withkwa.co.kr>